길 위에서 만나는 땅과 사람에 대한 육친의 정

김수한_생각의나무 편집팀장

4월 12일에 신정일 선생의《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출판기념회에 참석차 모처럼 전주에 다녀왔다. 서울에서 일찌감치 출발해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 내려 낮참으로 비빔밥 한 그릇을 사먹고 전주동물원에 들렀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데, 이 풍경은 왜 늘 과거시제인지. 전주는 따뜻하고 조용하여, 지나가는 자로 하여금 이곳에서는 사는 일이 덜 팍팍하고 번다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는 전주에 사는 사람을 보고서도 이는 생각이었는데, 신정일 선생은 그 본보기가 아닐까 싶다. 행사장인 민촌아트센터 마당에는 푸짐한 먹거리가 차려진 가운데 개량한복을 입은 신정일 선생이 반갑게 손님들을 마중하고 있었다. 전날 〈출판저널〉이 선정하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책의 의의를 좀더 많은 이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맑은 날, 맑은 곳에서 함께 나눈 시간은 오래 기억되기 마련임을 나는 안다.

사람은 어떻게 글과 만나게 되는지 궁금해 하던 시절이 있었다. 쓰거나 읽거나 간에 세계를 글로 견디는 시간을 보낸 이들이 지난날을 반추하는 언어는 진지하다. 그 진지함이 거북스러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몸으로 겪고 구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글과 삶의 맛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직접 대면하여 엿들은 신정일 선생의 지난날도 곡진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저런'이라는 간투사를 연발하게 하였다. 가난과 부박한 조건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 여러 권의 종요로운 저술을 생산하고, 우리 역사의 공란을 채우는 모임을 이끌어온 신정일 선생의 부지런한 활동을 접하고서 생각의나무는 선뜻 출판을 기획하였다. 신정일 선생의 글은 몸으로 씌어진, 그리고 어느 한 편으로 쏠린 데 없이 풍경의 안과 밖을 보고자 하는 사려 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정일의 한강역사문화탐사》에 이어 출간된《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는 추천의 글을 쓴 임재해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시대 마지막 민중들의 생생한 삶을 골골이 찾아서 미주알고주알 챙겨두는 인문지리적 탐사기"이다. 이 책에는 체험과 사료史料, 문학과 실물 지수, 우연한 만남과 근대화의 흔적, 삶의 문리와 자연의 물리, 허망과 발견이 고루 담겨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걷는 선생의 몸이 있다. 지친 육신으로 길고도 어둔 터널을 무서워하며 통과하여 숙소로 찾아드는 노정이 있으며, 무거운 짐에 짓눌린 어깨와 부르튼 발바닥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역정이 있으며,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땅과 사람에 대한 육친의 정이 있다. 강을 따라 걷는 이에게 복이 있다면 몸과 자신과의 대면일 것이고, 책을 읽는 이에게 작은 복이 있다면 그 대면을 뒤쫓으면서 얻는 지식과 마음의 박자일 것이다.

책을 편집하는 사이사이 선생은 사무실에 다녀갔다. 두 손으로 감싸는 따뜻한 악수와 웃음을 건네주고 돌아가던 그 고단한 걸음은 훗날 우리가 탐사해야 할 운동으로 남을 것이다. 이미 '영산강역사문화탐사' 원고를 탈고하고, 남쪽의 샛강 기행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의 바람은 북녘 강을 따라 걷는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산하를 모두 훑은 최초의 인문지리지가 될 것이다. 부디 '대동강역사문화탐사'를 편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오래 전부터 황토현문화연구소의 답사에 동행하고 싶었으나 뒷머리를 잡아채는 일상에 쫓겨 그러질 못했다. 올에는 꼭 내 몸을 부려 저녁 강을 따라 선생이 말씀하신 병산서원을 찾아가고 싶다.